

11.1%, '맛이 없다' 9.4%, '비위생적이다' 9.7%이었으며, 소수의견으로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TV를 보지 못한다', '줄을 서야한다' 등이 있었다. 37%의 아동이 주당 아침식사 횟수가 4회 이하이었으며, 30%의 아동이 하루에 한번 가족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였다. 또한 아동의 50%정도가 주당 2~3회 빈도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였으며, 식사예절교육은 선생님 20.1%, 부모 18.1%, 조부모 12.1% 순이었고, 아동의 15.8%는 식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가정식의 영양학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의 필요성과 바른 식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P1-8】

유방암 환자의 폐경 전후에 따른 생활습관 및 산과요인에 관한 연구

김은정¹ · 최봉순 · 이희자¹⁾ · 이충원¹⁾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¹⁾

유방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미국의 경우 가장 흔한 암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낮았으나, 생활방식이 서구화되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서구화 되어가는 생활 패턴으로 초경 연령이 빨라지고, 폐경연령이 늦어지는 등 유방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갈수록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거나 출산하지 않을 경우 등에서도 유방암의 발생률이 다소 높다고 한다. 그 외에도 과도한 영양 및 지방섭취, 비만, 장기 피임약 복용, 여성 호르몬제의 장기간 투여 등도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령별 빈도는 미국과 서부 유럽에서는 50대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대에 가장 많이 생기고 특기할 점은 점점 유방암 환자의 나이가 젊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미국이나 서부 유럽의 유방암과는 서로 다른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국인의 유방암에 맞는 진단법과 예방 및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국인의 유방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인자의 규명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Y대학병원 유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00명과 건강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폐경 상태에 따른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령, 학력, 직업, 질병력, 생활습관 등의 일반사항과 폐경 유무, 임신력 등의 산과력 조사 및 유방암의 가족병력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설문지 신뢰도 분석, 교차분석을 하였고, 연령 또는 폐경에 따른 효과 조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폐경 유무에 따라 나누어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대조군(100명) 45.82세, 환자군(100명) 46.84세로 양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군의 연령분포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완전히 폐경이 된 경우가 대조군이 22명(22%), 환자군이 30명(30%)이었다. 유방암환자의 병리학적 소견을 보면 편측 유방이 대부분(96.6%)이었고, 유방의 각 부유별 빈도는 액와부(axillary, 53%)가 가장 많았고, 조직학적 소견은 침윤성 유선암이 대부분(96%)이었으며, 가장 많은 병기는 폐경 전 여성에서는 IB기가, 폐경후 군에서는 IIA기이었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서 유의적인 비차비를 나타낸 변수는 학력, 경제환경 수준, 운동, 신체활동정도, 수면요인, 난소나 자궁의 질병력이었다. 산과요인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에서 유의적인 비차비를 나타낸 변수는 20대의 월경주기, 첫 만기분만 연령이었다. 모유수유요인과 유방암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연관성을 나타낸 비차비는 없었다.

【P1-9】

20~30대 성인 여성의 다이어트 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임미정¹ · 손숙미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보건 및 임상영양학과

최근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체중감량은 비만인의 질병의 치료, 성인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